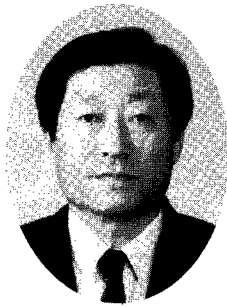


축산업계

소식

광주·전남양계 축협 김상현 신임 조합장 선출



△ 김상현 조합장

광주·전남양계 축협은 (조합장 : 김상현)은 지난 12일에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김상현 (51) 후보가 유효표 2백5표 중 121표를 득표, 86표를 얻은 이호남 후보에 35표차로 제4대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김상현 당선자는 조합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착회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요령고시

농림부는 지난 8월 27일에 우수한 초생추 생산과 청정 양계장을 만들기 위해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농림부 고시 1996-59호) 요령을 발표했다(본문 194쪽 참조)

도계장 위생관리 특별지도 점검

농림부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도계장의 위생관리 미흡은 물론 건강한 닭을 도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의과학연구소와 시·도합동으로 도계장 위생관리 특별지도·점검을 했다.

도계장의 주요 점검 내용은 냉장·냉동실은 1백제곱미터 이상 면적으로 하고, 도계처리 용량에 충분한 면적과 기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 작업실은 2백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하고 일괄 작업이 가능하도록 도계기계를 자동식으로 설비했는지와 실내 온도가 20℃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계류장안에 생계 수송차량 및 생계 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설비의 유무와 함께 작업실안의 바닥과 벽, 벽과 벽사이(바닥으로부터 1.5m이하)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며 작업과 청소가 쉽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도계육을 5℃ 이하에서 출고하고 있는지,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다.

수입육류 잔류물질검사 강화

국립동물검역소(소장 김옥경)는 수입육류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지난달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항목을 종전의 55개종에서 1백 11개종으로 늘려 수입육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항균제는 종전의 20개종에서 69개종으로, 항생물질은 18개종에서 22개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검사항목이 크게 늘어난 농약의 경우 아세테이트를 비롯해 52개종이 새로운 검사항목으로 추가됐으며, 합성항균제에는 이소메타미디움, 플루벤다졸이, 항생물질은 겐타마이신, 아목시실린이 각각 추가됐다.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농림부는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 요령” 제 4조에 의거하여 지난 20일자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강원대학교 축산대학 수의학과,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를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축협중앙회

리후렛 제작·배포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과 함께 리후렛(가축분뇨 자원화 처리모델)을 발표하였다.

이 책자에는 전축종에 걸쳐 알기 쉽고 자세히 설명을 했고, 시설별 자금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표하였다.

- 다 음 -

■자금지원 제도 개선

- 종 전 : 시설별로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지원
- 개선(97년부터) : 축종별로 축사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하여 지원

■시설별 지원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전				개 정			
	지원 단가	지원률(%)			지원 한도	지원률(%)		
		보조	융자	자담		보조	융자	자담
• 개별시설								
- 부업규모	4.2	50	50	-				
- 전업규모	10	10	50	50	-			
- 비료화시설	100	-	70	30	300	50	30	20
- 퇴비처리장비	10	-	-	-				
• 공동시설								
- 축분발효	1,000	50	20	30	1,500	50	30	20
- 분뇨운반장비	30	50	20	30				
- 분뇨저장탱크	50	50	20	30				
- 정착추진구조개선	300	100	-	-	400	100	-	-
• 불법제조시설	-	-	-	-	150	50	30	20

- 개별시설 퇴비처리 장비, 공동시설 분뇨운반장비 및 분뇨저장탱크는 개별비료화 시설, 공동축분발효시설 설치시 부대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음.

■축종별 지원기준

축 종	축사단위면적당 사업비(원/m ²)	개소당 총사업비 한도	
		개 인	단 체
돼지	74,000	3억	15억
한우	30,000	2억	8억
젖소	33,000	2억	8억
닭 : 평사	21,000	2억	10억
케이지	34,000	2억	10억

■문 의 처

- 농림부(축산국 축산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제2청사(02-504-9431)
- 환경부(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제2청사(02-504-9255)
- 축협중앙회 축산기술환경부 환경팀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1 (02-224-8470)
- 시·도 : 축산과(농정과), 환경관리과
- 시·군 : 산업과(축산과), 환경보호과
- 각축협도지회 및 지역축협 : 축산지도과

(사)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 낙농인 대회 개최



(사)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김남용)는 지난 23일 오후 2시에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앞 잔디밭에서 전국에서 낙농인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낙농인 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도 분유내 발암물질인 DOP검출 파동에 항의하는 한편 이번 소동이 정부의 고의적인 자료유출과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야기되었다고 규정하였으며, 정부는 낙농업 포기 기로에 놓인 농민들에게 공식사과를 하는 한편 낙농업 희생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의 징계 및 형사처벌과 재고분유의 즉각적인 수매, 우유 홍보예산 책정 등 5개항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같은 사태가 재발될 경우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대응할 것 등 3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국농어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보건복지부장관 해임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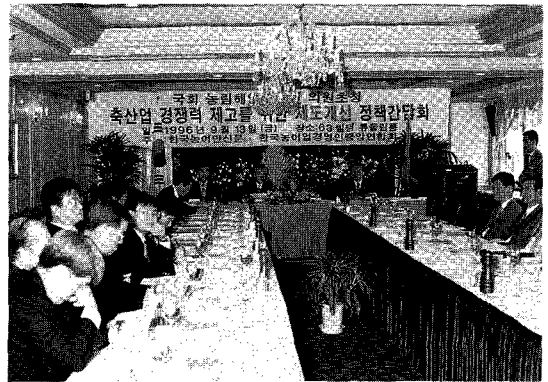
한국농어업경영인 중앙연합회(회장 엄홍우)

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우유 및 분유에서의 발암물질 검출 파문을 일으킨 보건복지부의 공식사과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파문으로 낙농가들은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비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무책임한 조사를 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육계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한국농어민신문(대표 황민영)은 63빌딩에서 이우재(신한국당), 이길재(국민회의), 정일영(자민련), 허남훈(자민련), 권오을(무소속), 김종배(국민회의) 의원과 본회 최원악 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개선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강연에서 김정주(전국대) 교수가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과제'를, 사례발표로 김강식(한국육류수출입협회) 회장이 외국의 사례를, 김인식(한국위생계육협회) 부회장이 국내사례를 각각 발표했고, 발표가 끝난 후 오찬장에서는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교환도 있었다.